

시냇물·흙담 어우러진 ‘자연 속 쉼터’



화순 동복면 가수리

시인 김용재씨 시골집

경신여고 국어교사이자 시인인 김용재(55)씨는 주말이나 시간이 날 적마다 광주에서 40여km 떨어진 화순군 동복면 외딴 집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15년 전에 마련한 김씨의 전원주택이 있다. 동복면 가수리 1구(하가)에 위치한 김씨의 전원주택은 40여 호에 불과한 동네 끄트머리에 있는 일(一)자형의 소박한 한옥이다.

한옥은 개울이 흐르고, 그 사이로 느티나무 두그루가
마주보고 서 있는 정감 어린 풍경 속에 자리하고 있다. 개
울 건너편 길에서 보면 느티나무 사이로 기다란 흙담 속
에 다소곳이 지붕만이 살짝 보인다. 요즘 유행하는 통나
무집이나 황토 흙집처럼 요란하지 않아 여타 동네 주택
들과 구분이 어렵다.

가끔은 징검다리에서 빨래하는 잊혀진 모습
도 여기서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만큼 아직까지
'개발과 속도의 시대'에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때
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김 씨는 “개울 물과 느티나무와 흙담, 마을 끝에 자리한 위치까지 4가지가 맘에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집 앞 느티나무가 탑이나 계약서에 까지 포함시켰다. 평소 친화력이 뛰어난 그였기에 동네 사람들과 허물없이 식사하고, 애경사에 빠져들었을 것이다.

빼짐없이 참석할 정도로 엄연한 동네 일원이 됐다.
흙담을 원편에 끼고 대문을 들어서면 마당 한편에는 크고 작은 수십 개의 항아리가 눈에 띈다. 된장, 고추장은 물론 산에서 채취한 여러 재료로 만든 각종 효소가 담겨 있다. 뒷마루에 올라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한 쪽에 컴퓨터가 있는 작은 책상과 피아노가 놓여있고, 다른 한 쪽에는 침대가 놓여 있는 단출한 방이 눈에 들어온다. 얼마 전 방안을 다시 손질하기 전까지는 벽면에 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한다. 천정이 없어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방 낭방은 예전 그대로 나무를 때는 온돌이다. 겨울이 면 무쇠 솔 하나가 걸어진 뒤편 부뚜막에서 직접 불을 지

핀다. 그래서 겨울철이면 뺄감 장만이 큰일 중의 하나다. 김 씨는 시골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계기에 대해 “대체 의학을 공부하면서 아파트보다는 공기와 물 좋은 흙집에 살이야 흉하고 생가하고 도심의 그 쪽 장소가 필요해” 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독서와 글 쓸 장소가 필요해 행

전통문화 살아있는 가수리 장승·속대가 마을 지킴이

동복면에서 7km가량 떨어져 있는 가수리(佳水里)는 우리 문화의 원형이 살아있는 곳이다. 아랫마을인 하가마을(아랫가무래마을)에는 벅수(장승) 한 쌍이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고, 윗마을인 상가마을(웃가무래마을)에는 짐대(속대·사진) 5기가 세워져 있다.

밤나무를 다듬어 만든 벅수 몸통에는 동방대장군, 서방대장군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마을을 지키고 질병과 도둑을 막아내는 마을의 수호신인 셈이다. 소 도둑이 밤새도록 도망가다고

간 것이 벅수 주위를 맴돌다가 잡혔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주민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벅수제를 올린다. 짐대(솟대)는 높다란 소나무 장대위에 나무로 깍은 오리를 만들어 올렸다. 마을 바깥을 바라보는 오리부리에는 대를 가늘게 쪼개 늘어뜨렸다. 새와 나무는 천상과 지상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구실을 한다. 주민들은 매년 음력 2월 5일 혹은 6일에 짐대제를 치른다.

력 2월 초하루에 짐대제를 지낸다.
200여 년 전인 1700년대 말 마을에 원인 모를 불이 자주 나자 마을 사람들은 동네 앞산이 화기(火氣)를 품고 있다고 믿고 마을 어귀에 짐대를 세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03년 향토문화유산 제 17호로 지정, 보호 관리하고 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A traditional Korean winter scene. In the foreground, a person wearing a pink headwrap and a dark coat is crouching on a low stone wall, washing laundry in a red tub. The ground is covered in thick snow.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large, round, snow-covered mound, possibly a kiln or a large mound of earth. To the right, a traditional Korean pavilion with a curved roof is visible, surrounded by bare trees. The sky is overcast and grey.



▲화순군 동복면 가수리 김용재 씨의 시골집 설경. 집앞 개울에서 동네 아낙이 빨래를 하고 있다.

◀군불을 지피고 있는 김용재씨.
무쇠 솔과 까맣게 그을음 앓은
아궁이가 점겹다.

This image is a yellow advertisement for Saramonic microphones. It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in the upper right corner and a landscape photo in the lower left corner. The background has a repeating pattern of the Saramonic logo.